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은기수**

이 연구는 한국 기혼부부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고,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부인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지 밝히기 위해 성 이데올로기론, 시간제약이론, 상대적 자원이론 등 세 이론을 검토한 후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가운데 현재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한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경우만 추출하고 부부의 자료를 하나의 레코드로 변환하여 부부의 가사노동분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 이데올로기론에서 나온 성역할에 관한 태도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에 관한 태도나 가치가 가사노동이라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제약이론에 따라 설정된 상대적 노동시간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변수가 들어간 모형의 설명력이 특히 여성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 노동시간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유의미하고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선형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반면에 상대적 자원이론에 따른 상대적 소득의 효과는 남성의 경우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는 일단 여성의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가사노동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단어 : 가사노동분업, 성 이데올로기론, 시간제약이론, 상대적 자원이론

I. 가사노동분업과 성불평등

전통시대를 거쳐 근대사회로 이행했을 때 소위 근대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반면에 남성은 집 밖에서 노동을 하면서 가족성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라고 인식되었다. 남자들이 가족성원을 부양하는 가족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회학 부교수 | eunkisoo@snu.ac.kr

모형(male breadwinner family model)이 근대사회의 가족모형이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Buchmann and DiPrete, 2006). 외국 선진국의 경우 대학교 및 그 이상의 고등교육에서 이미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남성들의 교육수준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교육수준의 향상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집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참여,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갖게 된다.

노동시장 참여라는 행위의 측면에서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역할이라는 가치체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족가치는 아직 여전히 매우 전통적이다(은기수, 2006). 그러나 성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다른 영역에서처럼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기존연구들은 선진국의 경우 남성이 생계부양을 하고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하는 가족모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20세기 중반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가족모형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Gordin, 1990).

여성들이 밖에서 노동을 한다면, 남성은 밖에서 노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여성은 집에 머물면서 가족을 돌본다는 성별 노동분업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모든 사회의 성별 노동분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만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다. 국가별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곳은 여럿이지만, 여성들은 밖에 나가 노동을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체로 인식되는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성별 노동분업에서 여성의 노동과 관계없이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Hochschild, 1989). 반면에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속도는 더디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도 밖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도 증가하여 결국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비슷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수렴이론도 존재한다(Gershuny, 2000; Gershuny, Godwin and Jones, 1994).

어떤 주장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Sayer, 2005).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주체는 여성이고, 일하는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

지고, 여성들의 일에 대한 열망도 높아졌지만,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아직도 매우 전통적인 가족가치에 머물러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도 특히 결혼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식부문에서 성 평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성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기혼부부를 중심으로 성별 가사노동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¹⁾. 이 연구는 2004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결혼한 부부를 모두 골라 가사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한다. 그 다음 가사분담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적 논의에 따라 한국의 가사분담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다음 연구의 과제를 밝힌다.

II. 이론과 기존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이 절에서는 가사노동분업을 둘러싼 이론 및 기존연구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연구를 살펴본다.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이론으로는 크게 세 흐름의 이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Coltrane, 2000; Coverman, 1985).

1. 성 이데올로기론

성 이데올로기론은 성평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가사노동을 균등하게 나누어 한다는 주장을 한다(Lavee and Katz, 2002; Shelton and John, 1996). 한 사람이 성평등적인 가치나 태도를 지니는 것은 사회화의 결과로서 이해

1)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가족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다룬 자료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다. 사회학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이용한 가사노동분업의 연구는 김수정·김은지(2007)의 연구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업적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검토는 김수정과 김은지의 기존연구 검토를 참고하기 바란다.

된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부모 및 다른 가족성원과의 접촉을 통해 가족을 통해 내려오는 가치관을 습득할 수도 있다. 성평등에 관한 부모의 가치관 및 행위는 성평등에 관한 자녀의 가치관과 관련이 많다. 부모를 통한 가치관의 전승, 부모의 행위를 보고 지내 온 삶은 사회화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또래와의 접촉을 통해 성평등에 관한 가치관을 습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분업과 관련해서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성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가사노동분업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Cummingham, 2001). 따라서 사회화의 영향을 너무 과대 평가해서는 안된다.

가사노동분업과 관련해서 성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한 가치나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가사분업도 균등하게 나뉘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이 가정은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Fuwa, 2004; Hook, 2006).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성평등적인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으면 가사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존 연구는 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Bianchi et al., 2000). 이 연구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적인 성역할 태도가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다르다고 가정한다.

가설 1: 남성의 경우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가사노동분업과 관계가 없다. 반면에 여성은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가사노동을 적게 한다.

2. 시간제약이론

시간제약이론(time constraint theory)은 같은 가구 내에서 개인들은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간의 합리적 분배를 통해 가구의 한계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경제학적 가정이 이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다. Becker(1981) 등의 논의에 따르면 가구를 단위로 가장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시간배분의 한계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노동시간을 배분하는가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이론은 특화(specialization) 이론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Hook, 2006).

가사노동을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가 가장 특화시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학자들은 남성은 밖에서 하는 노동으로 특화되어 있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

사노동에 특화되어 있어서 남성들이 밖에서 노동을 하면서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고, 여성들은 출산, 육아 및 가족을 돌보는 일로 노동분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도 모든 사회에서 남성이 주로 밖에서 노동을 하여 돈을 벌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해 왔다.

기존의 연구들도 이런 가정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를 산출해왔다. 각 가구 내에서 성별에 따라 각각의 일이 특화되어 주로 남성이 밖에서 노동을 하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맡게 되는데, 남성들이 노동하는 시간이 증가하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남성들도 집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Fuwa, 2004; Hook, 2006).

그러나 이 이론에서 가정하는대로 정말 남성은 밖에서 노동을 하는 것으로 특화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여성은 가사노동에 특화되어 이런 형태로 성별 노동분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분업이 가구당 가장 합리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여 한계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Folbre, 1986). 우리나라에서도 남녀간 성별 가사노동분업에 시간제약이론의 가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설 2: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지만, 남성의 노동시간에 대비해서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남성의 노동시간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간(상대적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돌봄노동이 발생하게 된다(Craig and Sawrikar, 2009; Drago, 2009). 특히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집중적인 돌봄노동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어린 자녀가 필요로 하는 집중적인 돌봄노동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ianchi et al. 2000; Bianchi et al. 2006). 그러나 남성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미취학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4: 남성과 여성 모두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집중적인 돌봄노동의 필요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

3. 상대적 자원이론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은 남성과 여성이 하기 좋아하는 노동이 아니다. 시간을 들여 일을 해도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고, 노동의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육체노동이거나 감성노동(emotional work)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노동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면서도 그 가치를 잘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을 자신이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기 싫은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늘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결혼한 부부라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늘 시간과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잠재하게 되고, 이를 둘러싼 흥정과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적인 행위의 면에서는 흥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Greenstein, 2000).

본질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가사노동을 결혼한 부부 가운데 남편이 하는지 아니면 아내가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는 누가 더 유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된다는 것이 상대적 자원이론의 핵심이다. 즉 경제적으로 유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게 경제적인 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기 싫은 가사노동의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 상대적 자원이론이다(England and Farkas, 1986; Fuwa, 2004; Bexter, Hewitt and Western, 2005; Hook, 2006).

대표적인 경제적 자원은 소득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부 간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수정과 김은지(2007)의 연구는 여성들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여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오히려 증가하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김수정과 김은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소득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라고 가정한다.

가설 5: 부부 가운데 여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다.

가설 6: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소득보다 더 높게 되면 여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

Ⅲ. 자료 및 변수

이 연구는 2004년 9월 2일부터 12일간에 걸쳐 통계청이 시행한 생활시간조사의 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먼저 가구를 표집한 후 각 가구에 속한 10세 이상의 가구원이 일인당 이틀씩의 시간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10세 이상 남자 14,899명, 여자 16,735명 등 총 31,634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모두 이틀치 생활시간일지를 제공하여 총 63,268일의 시간일지 자료가 산출되었다.

이 연구는 결혼한 부부들의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응답자 가운데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유배우 부부만 추출하였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각각 6,197명이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들이 각각 이틀치의 생활시간일지를 제공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시간일지 자료는 모두 24,788일의 시간일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하루 생활시간을 분석하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의 생활시간 자료를 합쳐서 하나의 레코드로 변형하였다. 그 결과 12,394개의 레코드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가사노동시간이다. 여기서 가사노동은 요리,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자녀를 돌보기, 고령자 돌보기 등 돌봄노동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 모든 시간은 분을 단위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가사노동시간의 단위도 역시 분이다.

2. 독립변수

성역할 태도: 성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성역할에 관한 태도는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남녀의 가사노동 참여와 관계가 있다고 알

려져 있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각 개인에게 다음의 질문이 주어졌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라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다. 즉 이 변수에서 낮은 값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의미하고 값이 올라갈수록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의미한다.

상대적 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에서 소득이 있는 노동은 두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하나는 생활시간일지를 작성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설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되었다.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습니까?” 응답은 “일을 했음”과 “일을 하지 않았음”으로 측정되었다²⁾.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작성한 시간일지에서 유급노동을 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적 노동시간 변수를 만든다. 상대적 노동시간은 남성의 노동시간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간을 비교해서 (1) 부부 모두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남성만 일을 한 경우, (3) 남성이 여성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경우, (4) 남성과 여성이 같은 시간 노동을 한 경우, (5) 여성이 남성보다 더 노동을 많이 한 경우, (6) 여성만 노동을 한 경우 등으로 구분한 범주형 변수이다. 상대적 노동시간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해서 회귀분석에 이용한다.

상대적 소득: 200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소득은 각 응답자별로 월평균 개인소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않고, 소득의 구간을 제시한 후 각 응답자들로 하여금 자신에 해당하는 소득 범주를 고르게 하였다.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상대적 자원이론은 각 개인의 소득의 증감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를 가정하지 않는다. 가사노동은 결혼한 남녀가 서로 간에 소득의 많고 적고를 견준 후 상대적으로 자원이 큰 쪽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작은 쪽에게 누구나 하기 싫은 가사노동을 맡기는 상황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구간으로 표시된 소득변수를 이용해서 남녀의 상대적 소득 변수를 생성하였다.

2) 이 연구에서는 노동 및 상대적 노동시간을 계산하는데 이 설문항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설문항은 시간일지와는 별개로 지난 1주일간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인하고 있고, 시간일지를 작성한 날의 노동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만을 뽑았고, 동일한 날짜에 부부가 시간일지를 작성한 것을 하나의 레코드로 합쳐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인 날짜에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노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 상대적 소득 변수는 1의 값을 갖는다. 여성의 소득은 전혀 없고 남성의 소득만 있는 경우 상대적 소득 변수는 2의 값을 갖는다. 여성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남성의 소득이 여성의 소득보다 더 큰 경우에는 3의 값을 갖는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이 같은 구간에 속한 경우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이 같다고 보고 4의 값을 부여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이 있지만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 5의 값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소득은 전혀 없고, 여성의 소득만 있을 경우 상대적 소득 변수는 6의 값을 갖는다. 상대적 소득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해서 회귀분석에 이용한다.

3. 통제변수

세 가지 이론적 흐름에서 나온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정했지만 독립변수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변수들이 있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가족유형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을 때 가사노동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도 가사노동은 자녀를 돌보는 노동도 포함한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족유형 변수를 구성하였다.

가족유형: 부부에게 미혼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및 있을 때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수를 구성하였다: (1) 함께 사는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2) 함께 사는 미혼 자녀 가운데 미취학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3) 함께 사는 미혼 자녀 가운데 10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4) 함께 사는 미혼 자녀 가운데 2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족유형 변수를 구성하고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유형 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해서 분석에 사용한다³⁾.

부모와의 동거유형: 부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사노동에 도움을 받을 수

3)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가족유형을 구분하는 데 결정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가족구성원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특히 10세 미만의 자녀구성 파악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설문문항을 통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고 10세 이상의 모든 가족구성원이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취학하고 있는 자녀이면서 10세 미만의 자녀만 있는 가족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자녀의 연령구성에 따라 가족유형을 구분하였다.

도 있다. 반면에 연로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돌봄노동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는 가사노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경우에는 오히려 돌봄노동을 제공하여 가사노동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동거유형은 남성 및 여성 모두에게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거나 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이 변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1) 친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2) 친어머니 혹은 배우자의 어머니와 동거, (3) 친아버지 혹은 배우자의 아버지와 동거, (4)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가 함께 삼.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유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처리해서 분석한다.

위와 같은 변수를 설정한 후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포함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연구에 포함된 결혼한 남성의 평균연령은 41.8세이고 여성의 평균연령은 38.9세이다. 교육수준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다. 월평균 소득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고, 개인의 월소득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자녀의 유형에 따른 가족유형은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가족이 전체 가족의 19%,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전체 가족의 31.3%, 19세 이하의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 39.6%, 20세 이상 미혼자녀가 동거하는 가족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은 전체 가족의 10% 미만이다.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 전체 가족의 91%이고, 친모나 배우자의 모가 동거하는 경우가 6.4%, 친부 또는 배우자의 부가 동거하는 가족이 0.9%, 친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전체 가족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성역할태도는 남성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과 비전통적 성역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남성보다 비전통적 성역할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시간일지에서 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파악한 노동시간은 남성의 경우 419.2분으로 거의 7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189.2분으로 3시간을 약간 넘는다. 부부의 상대적 노동시간을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상대적 노동시간의 범주는 남편만 일한 경우로 40.9%에 해당한다. 그 다음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이 노동을 한 경우로 전체의 27.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둘 다 일하지 않은 경우로 13.9%를 차지한다.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일지가 포함되어

<표 1> 응답자의 특성: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변수	남성	여성
가사노동시간 (분)	48.8 (83.7)	312.8(178.9)
연령 (세)	41.8 (7.2)	38.9 (7.1)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14.9	20.5
고등학교	44.4	52.2
전문대 이상	40.7	27.3
월평균 소득 (%)		
없음	5.7	56.8
50만원 이하	1.1	8.0
50만원-100만원 미만	6.2	17.8
100만원-150만원 미만	20.9	8.6
150만원-200만원 미만	19.8	3.4
200만원-250만원 미만	18.1	2.5
250만원-300만원 미만	9.6	1.3
300만원-350만원 미만	8.5	0.9
350만원-400만원 미만	3.7	0.2
400만원-500만원 미만	3.8	0.2
500만원 이상	2.5	0.2
가족유형 (%)		
동거자녀 없음	19.1	
미취학 어린자녀	31.3	
10대 미혼 자녀	39.6	
20세 이상 미혼자녀	10.0	
부모와의 동거유형 (%)		
동거부모 없음	91.3	
친모 또는 배우자 모	6.4	
친부 또는 배우자 부	0.9	
친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1.4	
성역할태도 (점)	2.4 (0.7)	2.7 (0.6)
노동시간 (분)	419.2(263.8)	189.2(243.1)
상대적 노동시간 (%)		
둘 다 일하지 않음	13.9	
남편만 일함	40.9	
남편이 아내보다 많이 일함	27.4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시간 일함	0.9	
아내가 남편보다 많이 일함	11.3	
아내만 일함	5.4	
상대적 소득 (%)		
둘 다 소득이 없음	2.3	
남편만 소득이 있음	54.5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소득	29.7	
남편과 아내가 같은 소득	6.3	
아내가 남편보다 높은 소득	3.8	
아내만 소득이 있음	3.4	

주: 성역할태도: 1. 매우 찬성, 2. 찬성하는 편, 3. 반대하는 편, 4. 매우 반대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일을 하거나 아내만 일을 한 경우는 각각 11.3%와 5.4%이다.

상대적 소득 변수의 분포를 보면 남편만 소득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고,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29.7%로 그 뒤를 잇는다. 나머지 범주는 적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가사노동시간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하루 평균 48.8분이고 여성은 312.8분으로 하루 평균 5시간 13분을 가사노동에 보낸다.

IV.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기술적 분석

이 절에서는 결혼한 부부의 남성과 여성이 가사노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시간일지를 분석하여 주로 성별, 가족유형 및 노동유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 2>는 성 및 가족유형별 행위시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유형별로 볼 때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유형2의 남성이다. 하루 시간의 30%가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이다. 반면에 가족유형2에 속한 여성들의 노동시간은 가장 적다. 하루 시간의 8.5%만이 소득이 있는 노동에 투입된다.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가족유형2에 속한 여성들이 하루 시간의 29%를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고, 가족유형2에 속한 남성은 하루 시간의 4.6%만을 가사노동으로 쓰고 있다. 반면에 20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 남성의 하루 시간에서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다른 가족유형의 남성에 비해 적다. 노동시간도 가족유형3에 속한 남성들이 가장 적게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면을 포함한 개인유지 시간은 성 및 가족유형에

<표 2> 성 및 가족유형별 행위시간의 비율 및 총노동시간

(단위: %, 시간)

행위유형	가족유형1		가족유형2		가족유형3		가족유형4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노동	28.2	14.2	30.0	8.5	29.4	15.8	27.0	15.3
가사노동	3.2	16.9	4.6	28.8	2.8	19.7	2.5	17.1
개인유지	44.6	44.8	44.5	43.3	44.4	42.5	45.4	43.8
자유시간	24.1	24.1	21.0	19.5	23.4	22.0	25.0	23.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노동시간	7.7	7.7	8.3	8.9	7.7	8.5	7.1	7.8

따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서 가사노동의 부담이 큰 가족유형2의 남성과 여성도 하루 시간 가운데 개인유지에 드는 시간의 비율이 다른 가족유형의 남성과 여성에 비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연구에 활용된 자료에 포함된 남성들의 경우 총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경우는 가족유형2에 속한 남성으로 하루 평균 8.3시간을 노동 및 가사노동으로 보낸다. 총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남성은 가족유형4에 속한 남성으로 하루 평균 7.1시간을 노동으로 보낸다. 총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여성은 역시 가족유형2에 속한 여성으로 하루 평균 8.9시간을 노동 및 가사노동으로 보낸다. 총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여성은 가족유형1에 속한 여성으로 하루 평균 7.7시간을 노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유형1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시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유형3의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총노동시간에 하루 평균 0.8시간의 차이가 있다. 위의 결과는 자녀가 클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총노동시간이 감소하는데, 감소의 폭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3>은 지난 일주일간 소득이 있는 일의 여부, 가족유형 및 성별로 노동, 가사노동, 총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이 있는 노동을 한 경우 시간일지를 통해서도 파악되는 총노동시간은 길게 나타난다. 가족유형2에 속한 여성의 경우 총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으로 가장 길고 가족유형3에 속한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9.7시간, 가족유형4에 속한 여성은 시간,

<표 3> 지난 일주간 소득이 있는 일의 여부, 가족유형 및 성별 노동과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

	가족유형1		가족유형2		가족유형3		가족유형4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일함								
노동	7.2	5.7	7.4	5.2	7.4	5.8	7.2	6.1
가사노동	0.7	3.2	1.1	4.8	0.6	3.9	0.6	3.1
총노동시간	7.9	8.9	8.5	10.0	8.0	9.7	7.8	9.2
일하지 않음								
노동	0.6	0.1	1.1	0.0	1.1	0.1	0.6	0.1
가사노동	1.6	5.3	2.1	8.2	1.2	6.3	1.0	5.5
총노동시간	2.2	5.4	3.2	8.2	2.3	6.4	1.6	5.6

주: 생활시간조사에서 지난 1주일간 소득이 있는 일을 했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의 여부를 판단했다. 표 안에 제시된 노동시간은 지난 1주일간 소득이 있는 일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이틀치의 시간일지에 소득이 있는 노동을 했다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이다.

가족유형1에 속한 여성은 8.9시간 순으로 나타난다. 남성 역시 가족유형2에 속한 경우 총노동시간이 8.5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가족유형에 따라 여성들처럼 총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

지난 일주간 소득이 있는 노동을 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총노동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지난 일주간 소득이 있는 노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 가운데 가족유형2에 속한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으로 8.2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가족유형3에 속한 여성의 경우에는 6.4시간의 총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주간 소득이 있는 노동을 하지 않았던 남성들은 시간일지상의 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가족유형2에 속한 남성의 경우 3.2시간으로 가장 길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6시간에서 2.3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표 3>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노동하는 사람들과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총노동시간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새롭게 보이는 측면은 여성의 경우 노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투여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총노동시간이 어느 가족유형에 속한 남성이나 여성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취학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녀돌봄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노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부담 때문에 총노동시간이 길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바깥에서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가사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바깥에서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에 투여되는 시간은 감소할지 몰라도 소득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는 남성과 노동을 하는 남성들 사이에 가사노동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 노동을 하는 여성에 비해 노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여성의 총노동시간과 노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총노동시간을 비교하면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총노동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아, 여성 내부에도 노동의 여부에 따라 총노동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평등 못지 않게 동일한 성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표 4>는 가사노동의 내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가사노동은 집안 일돌보기, 자녀돌보기, 노인돌보기, 물건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지난 일주간 노동여부, 성별 및 가족유형별 가사노동시간의 구성

(단위: 시간)

	가족유형1			가족유형2			가족유형3			가족유형4		
	전체	일함	일안함									
남성												
총가사노동	0.8	0.7	1.7	1.0	1.0	2.2	0.7	0.7	1.2	0.6	0.5	1.1
집안 일	0.5	0.4	1.2	0.3	0.3	0.8	0.4	0.4	0.9	0.4	0.4	0.9
자녀돌보기	0.1	0.1	0.2	0.6	0.6	1.0	0.1	0.1	0.1	0.1	0.1	0.1
노인돌보기	0.1	0.1	0.2	0.0	0.0	0.2	0.1	0.1	0.1	0.0	0.0	0.0
물건사기	0.1	0.1	0.1	0.1	0.1	0.2	0.1	0.1	0.1	0.1	0.1	0.1
여성												
총가사노동	4.1	3.2	5.3	6.8	4.8	8.2	4.7	3.9	6.3	4.0	3.1	5.5
집안 일	3.1	2.6	3.9	3.4	2.6	3.9	3.7	3.1	4.8	3.5	2.8	4.7
자녀돌보기	0.5	0.3	0.7	3.0	1.9	3.7	0.6	0.4	0.9	0.1	0.1	0.2
노인돌보기	0.2	0.1	0.2	0.1	0.1	0.2	0.1	0.1	0.2	0.1	0.1	0.2
물건사기	0.3	0.2	0.4	0.3	0.2	0.4	0.3	0.2	0.5	0.3	0.2	0.4

가사노동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일반적인 의미의 집안 일이다. 집안 일에 드는 시간은 여성의 경우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여성들이 하루 3.7시간의 집안 일을 한다. 가족유형4나 가족유형2에 속한 여성도 각각 3.5시간, 3.4시간의 집안 일을 하고, 가족유형1에 속한 여성도 제일 적지만 그래도 3.1시간의 집안 일을 한다. 그래서 집안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비슷한 시간이 투여된다. 그러나 가족유형2는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돌보기에 시간이 많이 투여된다. 가족유형2에 속한 여성의 경우 집안 일 못지 않게 자녀돌보기에 하루 평균 3시간이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건사기에는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거의 같은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유형2에 속한 경우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이 가장 많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의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가족유형2에 속해 있는 남성이 역시 자녀돌보기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가족유형의 남성에게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및 가사노동의 구성은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양태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지난 일주간 일을 한 경우와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각 가족유형별로 총가사노동의 차이는 거의 2배에 이른다. 예를 들어 가족유형2에 속한 남성의 경우 일을 한 경우 총가사노동시간은 1시간인데 비해 일을 안 한 남성은 2.2시간으로 2배가 넘는다. 가족유형1에 속한 남성도 일을 한 경우 총가사노동시간은

0.7시간에 불과한데, 일을 안 한 경우에는 1.7시간으로 역시 2배가 훨씬 넘는다. 그러나 총가사노동의 절대 시간은 여성에 비해 무척 적다. 남성의 경우에 가족유형2에 속한 남성이 자녀돌보기에 들이는 시간이 다른 가족유형의 남성에 비해 많은 것은 당연한데, 노동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보면 일을 안 한 남성이 자녀를 돌보는데 들이는 시간이 매일 평균 1시간에 이르고 있다. 일을 한 남성도 가족유형2에 속한 경우 매일 30분 이상을 자녀를 돌보는데 들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가족유형2에 속한 여성의 총가사노동시간은 8.2시간이다. 이 시간의 40% 이상이 집안 일과 자녀돌보기에 사용되고 있다. 가족유형4에 속한 여성의 경우 총가사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5.5시간인데 이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집안 일을 돌보는데 들어가고 있다.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들이는 절대시간은 남성에 비해 훨씬 많다. 이는 일을 안 한 여성이든, 일을 한 여성이든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절대량은 남성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일을 한 여성과 일을 하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 총가사노동시간비는 남성보다 적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에는 일을 안한 남성이 일을 한 남성에 비해 총 가사노동시간이 2배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유형별로 나눈 후 다시 노동의 여부에 따라 일을 안한 여성의 총가사노동시간을 일을 한 여성의 총가사노동시간과 비교하면 2배가 되는 경우가 없다. 이는 여성의 경우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한 정도의 가사노동을 하는 부담을 모두 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가족유형 가운데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일을 하는 남성과 일을 하지 않는 남성 사이에 총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절대량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일을 하지 않는 남성은 일을 하는 남성보다 하루 평균 2배 이상의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의 절대시간은 남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또한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고, 노인돌보기나 물건사기 등에 들어가는 시간은 가족유형이나 노동여부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족유형2에 속한 여성들은 집안 일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시간못지 않게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이는 미취학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과 비교해서도 얼마나 큰 부담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은 남성이 도와주고 자녀돌보기를 분담한다 해도 여전히 여성의 몫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성별 가사노동분업의 회귀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성 이데올로기론, 시간제약이론, 그리고 상대적 자원이론 등을 검토하면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사노동분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분업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가사노동분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분석하였다.

다음 <표 5>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연령, 교육수준, 가족유형, 부모와의 동거유형, 요일 등의 통제변수에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수를 함께 넣은 모형이다. 이 모형은 통제변수들로만 이루어진 기본 모형에 성 이데올로기론에 따른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형 1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노동분업에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이 동거하는 미혼 자녀가 없는 가족유형에 비해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10세 이상 청소년 자녀가 있거나 2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적다. 부모와의 동거유형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친모나 배우자의 모가 동거하는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토요일에 비해 일요일에는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다.

성 이데올로기론에 근거해서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는지를 보기 위해 모형 1에 추가된 성역할태도 변수 회귀계수의 값이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온다. 즉 비전통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남성은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노동시간이나 소득을 통제했을 때도 결과가 같은지는 이 모형으로는 알 수 없다.

모형 2는 모형 1에 시간제약이론에 근거한 노동시간 변수를 더한 모형이다. 가족유형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미취학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남성은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

모형 2에서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형 1에 남성의 노동시간 및 상대적 노동시간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성역할 태도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5> 남성 가사노동시간의 회귀분석 결과 (N=12,394)

	모형 1 회귀계수(표준오차)	모형 2 회귀계수(표준오차)	모형 3 회귀계수(표준오차)
상수	51.3(7.57)***	115.2(7.35)***	49.1(7.56)***
연령	- 0.0(0.14)	- 0.4(0.13)***	- 0.1(0.14)
고등	- 3.4(2.31)	0.2(2.12)	- 1.9(2.32)
전문대이상	2.4(2.43)	2.6(2.23)	4.2(2.56)
6세미만 자녀	19.2(2.30)***	22.5(2.11)***	21.2(2.29)***
청소년 자녀	- 5.8(2.07)***	- 3.0(1.89)	- 5.6(2.06)***
20세이상 자녀	- 9.2(3.11)***	- 7.8(2.85)***	- 9.9(3.09)***
친모/배우자모	5.7(2.99)*	2.9(2.74)	4.6(2.97)
친부/배우자부	- 8.5(7.57)	- 5.1(6.93)	- 7.4(7.50)
양부모	8.9(6.19)	5.2(5.67)	8.2(6.14)
평일	-24.9(1.87)***	- 6.5(1.76)***	-24.6(1.85)***
일요일	17.0(2.29)***	- 8.2(2.23)***	16.8(2.27)***
본인의 성역할태도	3.1(1.11)***	1.7(1.03)	1.7(1.11)
본인 노동시간		- 0.1(0.00)***	
상대적 노동시간1		- 0.2(3.08)	
상대적 노동시간3		8.1(1.71)***	
상대적 노동시간4		25.7(7.05)***	
상대적 노동시간5		17.1(2.37)***	
상대적 노동시간6		16.0(3.78)***	
본인 소득			- 0.3(0.42)
상대적 소득1			38.5(5.31)***
상대적 소득3			7.7(1.68)***
상대적 소득4			12.7(3.12)***
상대적 소득5			20.6(3.94)***
상대적 소득6			49.6(4.55)***
R ²	0.06	0.22	0.08

주: * p<0.10, ** p<0.05, *** p<0.01

- 1) 교육: 준거집단: 중등이하.
- 2) 가족유형: 준거집단: 함께 사는 자녀가 없음.
- 3) 부모와의 동거유형: 준거집단: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음.
- 4) 성역할태도: 1. 매우 찬성, 2. 찬성하는 편, 3. 반대하는 편, 4. 매우 반대.
- 5) 상대적 노동시간: 준거집단: 남편만 노동함.
- 6) 상대적 소득: 준거집단: 남편만 소득이 있음.

이 연구의 두 번째 관심은 남성의 노동시간 및 상대적 노동시간이 남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형 2에서 노동시간 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이는 남성의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남성들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감소함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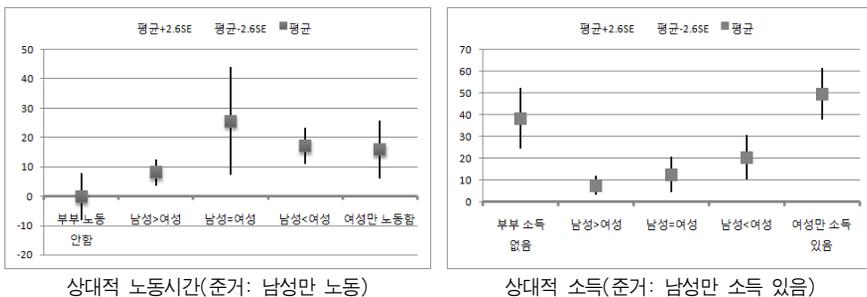
그러면 상대적 노동시간은 남성의 가사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상대적

노동시간이 가사노동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형 2는 다섯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준거범주는 부부 가운데 남성만 일하는 경우이다. 남성만 일하는 경우에 비해서 부부 모두 일하지 않은 경우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한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반면에 여성이 노동을 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늘어난다. 부부 가운데 여성의 노동시간 증가는 남성의 가사노동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 중 아내의 노동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선형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회귀계수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같은 시간을 노동할 때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가장 길다. 그러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여 남성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노동하게 되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오히려 감소한다. 남성은 일하지 않고 여성만 일하는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이 같은 시간 노동하거나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랜 시간 노동하는 경우보다도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적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노동시간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의 모습을 띤다. 다음 <그림 1>은 상대적 노동시간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을 99% 신뢰구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로는 상대적 노동시간에 따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이 동일할 때 남성이 가장 많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을 앞지를 때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의 99% 신뢰구간을 구해보면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남성>여성, 남성=여성, 남성<여성, 여성만 노동함의 범주 사이에 가사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남성만 노동하는 경우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남성이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림 1> 상대적 노동시간 및 소득에 따른 남성 가사노동시간의 99% 신뢰구간



상대적 노동시간의 변화에 따라 남성의 가사노동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상대적 노동시간의 영향을 범주형 변수로 설정해서 나온 결과에 바탕한 것이다. 만약 상대적 노동시간을 연속변수로 이용한다면 상대적 노동시간이 남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데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더 많게 되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형 2를 통해 상대적 노동시간이 남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만 그 영향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모형 2에서 노동시간 변수 대신 소득 변수를 넣은 변수이다. 모형 3에 포함된 성역할태도의 회귀계수는 모형 2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남성의 가사노동에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 본인의 소득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모형 3에는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소득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상대적 소득의 더미변수가 들어 있다. <그림 1>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부부 모두 소득이 없을 때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준거범주인 남성만 소득이 있을 때의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보다 더 길다. 그 다음 여성도 소득이 있지만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을 때에는 역시 남성만 소득이 있을 때보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더 길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이 같을 때, 남성의 소득이 여성의 소득보다 낮을 때, 여성만 소득이 있을 때 등으로 여성의 상대적 소득이 계속 높아지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계속 증가한다. 모형에 포함된 상대적 소득의 남성>여성, 남성=여성, 남성<여성 등의 세 범주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대적 노동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소득을 연속변수로 구성하게 되면 남성의 소득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에 관해 간단히 정리하면, 자녀의 연령에 따른 가족유형은 남성의 가사노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남성도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어느 가족유형의 남성보다도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부모와의 동거유형은 남성의 가사노동에 별다른 차이를 낳지 않는다. 남성의 성역할태도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도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과 가사노동시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노동시간은 남성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계속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의 노동시간은 오히려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남성 본인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남성이 가사노동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상대소득이 증가할수록 남성은 가사노동을 늘인다. 맞벌이부부의 상대적 소득이 가사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수정·김은지(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상대적 소득이 남성의 가사노동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홀벌이 부부를 모두 포함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소득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다음 <표 6>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통제변수 및 성역할태도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모형 1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학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은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이 길다. 특히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평균 2시간 45분이나 가사노동시간이 길다. 친모나 배우자의 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30분 정도 적다. 모와 동거하는 경우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노동시간이나 소득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여성 자신의 성역할태도도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다.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형 2에서 여성 본인의 노동시간 및 상대적 노동시간 변수를 추가하면 성역할태도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진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과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 사이에 가사노동시간은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모형 2에서 노동시간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보자. 여성 본인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1분 증가하면 가사노동시간은 0.4분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영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른 한 편 부부의 상대적 노동시간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부부가 모두 노동하지 않을 때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만 노동하는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보다 더 적다. 부부가 모두 노동하지 않을 때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인지 모른다.

<표 6> 여성 가사노동시간의 회귀분석 결과 (N=12,394)

	모형 1 회귀계수(표준오차)	모형 2 회귀계수(표준오차)	모형 3 회귀계수(표준오차)
상수	279.5(15.36)***	332.4(11.99)***	300.5(14.01)***
연령	- 0.1 (0.29)	- 0.3 (0.23)***	- 0.3 (0.27)
고등	29.0 (4.24)***	- 1.0 (3.32)	23.4 (3.86)***
전문대이상	29.4 (4.91)***	-10.6 (3.85)***	36.4 (4.58)***
6세미만 자녀	165.7 (4.67)***	137.2 (3.65)***	147.0 (4.24)***
청소년 자녀	38.4 (4.19)***	48.6 (3.26)***	50.4 (3.80)**
20세이상 자녀	10.8 (6.32)*	6.2 (4.93)	12.4 (5.72)*
친모/배우자모	-29.5 (6.03)***	- 0.3 (4.71)	- 9.2 (5.47)*
친부/배우자부	7.2 (15.28)	28.1 (11.91)**	2.8(13.82)
양부모	- 8.6 (12.50)	19.4 (9.74)**	14.3(11.32)
평일	- 6.4 (3.78)*	14.6 (2.99)***	- 6.4 (3.42)**
일요일	-15.7 (4.63)***	-33.8 (3.82)***	-13.5 (4.19)***
본인의 성역할태도	-17.4 (2.33)***	1.4 (1.83)	0.3 (2.14)
본인 노동시간		- 0.4 (0.01)***	
상대적 노동시간1		-53.1 (3.95)***	
상대적 노동시간3		-11.0 (4.68)**	
상대적 노동시간4		- 3.4(12.83)	
상대적 노동시간5		-18.4 (6.64)***	
상대적 노동시간6		-25.7 (6.75)***	
본인 소득			-19.2 (1.55)***
상대적 소득1			- 7.7 (9.01)
상대적 소득3			-82.9 (4.63)***
상대적 소득4			-99.1 (7.76)***
상대적 소득5			-86.7(10.31)***
상대적 소득6			-109.2 (8.62)***
R ²	0.17	0.49	0.32

주: * p<0.10, ** p<0.05, *** p<0.01

- 1) 교육: 준거집단: 중등이하.
- 2) 가족유형: 준거집단: 함께 사는 자녀가 없음.
- 3) 부모와의 동거유형: 준거집단: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음.
- 4) 성역할태도: 1. 매우 찬성, 2. 찬성하는 편, 3. 반대하는 편, 4. 매우 반대.
- 5) 상대적 노동시간: 준거집단: 남편만 노동함.
- 6) 상대적 소득: 준거집단: 남편만 소득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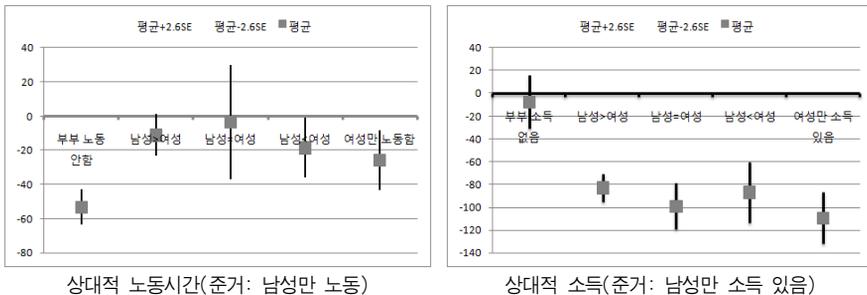
남성만 노동하는 경우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는 독특한 모습을 띤다. 다음 <그림 2>는 상대적 노동시간에 따른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의 노동시간보다는 적지만 여성도 노동을 하게 되면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간이 계속 증가하면 오히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의 정도가 약해진다. 그래서 남성의 노동시간이나 여성의 노동시간이 비슷하게 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만 노동하는 경우의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거의 같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을 추월하게 되면 여성의 가사노동은 다시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노동하지 않는 범주를 제외하면 여성만 노동하는 경우에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게 된다. 이처럼 상대적 노동시간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형 3은 소득변수가 들어 있는 모형이다. 모형 3에서도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않는다. 성 이데올로기론에 기반한 가설은 이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는다. 소득변수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여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

남성에 대비한 여성의 상대적 소득이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2>의 오른쪽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만 소득이 있는 경우의 여성이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성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여성은 가사노동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이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다가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 증가하는 식의 비선형적인 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범주로 표현된 상대적 소득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 소득 범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없이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즉 일단 여성 자신이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비슷한 정도로 감소한다.

<그림 2> 상대적 노동시간 및 소득에 따른 여성 가사노동시간의 99% 신뢰구간



이 결과는 김수정·김은지(2007)의 연구에서 상대적 소득이 여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다가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소득을 추월하게 되면 여성의 가사노동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이 연구에 포함된 분석대상과 김수정과 김은지의 분석대상이 다른데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성이데올로기론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데도 적절하지 않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과 관계가 없다. 반면에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가사노동이 크게 감소한 후 적은 폭으로 감소하다가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더 많아지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도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가사노동도 감소하고, 여성의 소득이 있으면 상대적 소득의 다과에 큰 차이없이 여성의 가사노동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VI.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기혼부부를 고른 후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이 어떻게 분담되고 있고, 부부간의 가사노동분업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을 통해 한국의 기혼부부는 어떻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는지,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의 분업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로 보면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의 측면에서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남성의 총노동시간보다 더 길다. 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지만, 여성은 오랫동안 가사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여성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다. 이는 총노동시간의 측면에서 성별로 별로 차이가 없게 된 외국과는 다른 현상이다(Coltrane, 2000).

이 연구는 한국 기혼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업을 설명하는데 성 이데올로기 이론, 시간제약이론, 상대적 자원이론이 얼마나 유효한지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첫째, 성 이데올로기이론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설명하는데 전혀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않았다. 통제변수에 성역할 태도 변수만을 추가했을 때는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태도에서 비전통적인 태도로 바뀌어 가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증가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

동시간 변수나 소득 변수가 모형에 추가되면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졌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성 이데올로기 이론은 한국 기혼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설명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둘째, 시간제약이론은 한국 기혼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업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의 하나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참여가 부부간의 갈등, 협상, 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이론으로 판단된다. 남성의 경우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더 길게 되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 반면에 여성이 일단 노동을 하게 되면 가사노동이 크게 감소했다가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감소폭은 작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다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기본모형보다 시간제약이론에 따른 노동시간 변수를 포함한 모형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업을 설명할 때 설명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

남성과 여성으로 자료를 나누어 시간제약이론에 따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측정하여 나온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설명할 때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모형의 설명력도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 기혼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 자원이론도 한국의 기혼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업을 이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 상대적 자원이론에 따른 변수를 추가할 때 기본모형의 설명력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된 설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데 상대적 자원이론에 따른 모형은 여전히 설명력이 매우 낮다.

남성은 여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을 늘린다. 그러나 여성은 전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교해서 일단 소득을 올리기 시작하면 상대적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감소폭이 비슷하다.

가사노동은 여전히 성불평등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한 편에서는 비관적으로 다른 한 편에서는 낙관적으로 그려지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연구로는 가사노동분업을 이해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한 사회의 성평등 정도에 따라 가사노동의 분업이 차별적으로 개선되는 연구(Fuwa, 2004), 그리고 가사노동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이 이루어지는 맥락(context)에 따라 가사노동

의 분업을 이해하는 연구(Hook, 2006)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연구 성과는 한 사회만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업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연구도 분석대상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이론을 적용해 보고, 국제비교를 통해 개인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변수가 갖는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정·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은기수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 Baxter, Janeen, Belinda Hewitt and Mark Western (2005) “Post-Familial Families and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6: 583-600.
- Becker, Gary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ianchi, Suzanne M., Melissa A. Milkie, Liana C. Sayer and John P. Robinson (2000) “Is Anyone Doing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anchi, Suzanne M., John P. Robinson and Melissa A. Milkie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uchmann, Claudia and Thomas A. DiPrete (2006) “The Growing Female Advantage in College Completion: The Role of Family Background and Academic Achiev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515-541.
- Coltrane, Scott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208-1233.
- Coverman, Shelly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The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 Craig, Lyn and Pooja Sawrikar (2009) “Work and Family: How Does the (Gender) Balance Change as Children Grow?” *Gender, Work and*

- Organization* 16(6):684-709.
- Cummingham, Mick (2001) "Parental Influence on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2): 184-203.
- Drago, Robert (2009) "The Parenting of Infants: A Time-Use Study" *Monthly Labor Review* October: 33-43.
- England, Paula and George Farkas (1986) *Households, Employment and Gender: A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View*. New York: Aldine.
- Folbre, Nancy (1986) "Hearts and Spades: Paradigms of Household Economics" *World Development* 14(2): 245-255.
- Fuwa, Makiko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 Gershuny, Jonathan, Michael Godwin, and Sally Jones (1994) "The Domestic Labour Revolution: A Process of Lagged Adaptation" In M. Anderson, F. Bechhofer, and J. Gershuny (eds)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rshuny, Jonathan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rdin, Claudia Dale (1990) *Understanding the Gender Gap: An Economic History of American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stein, Theodore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322-335.
- Hochschild, Arlie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 Hook, Jennifer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 Lavee, Yoav and Ruth Katz (2002) "Division of Labor, Perceived Fairness, and Marital Quality: The Effect of Gender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27-39.
- Sayer, Liana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 285-303.
- Shelton, Beth Anne and Daphne John (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299-322.

[2009. 9. 14 접수 | 2009. 10. 20 심사(수정) | 2009. 11. 23 채택]